

# ‘이산의 슬픔 달래는 데 컴퓨터도 한몫’

## - 이산가족 찾기 전산처리 -

오영섭

이산가족 찾기는 초기에 KBS에서 2시간 특집으로 방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특집방송 이후 열화와 같은 천만 이산가족들의 성화로 연일 계속적으로 생방송을 밤낮으로 계속하게 되었고, 술한 일화를 남기고, 또한 온 국민의 관심이 TV로 집중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이산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가! 여의도 KBS 건물벽과 길바닥을 하얗게 가득 메운 사연들, 그리고 행여 TV 카메라에 한번이라도 더 포착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들. 1983년 초여름의 일이었다. 이제 이산가족 찾기는 천만 이산가족들만이 아닌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1983년 7월 내무부 주관으로 안내책자가 배포되면서부터 보다 체계적인 이산가족 찾기가 시작되었으며, 내무부, 대한적십자사, KBS, 치안본부, 그리고 우리 연구소가 공동 협조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내무부 시·군·구 민원실 해외 주재 공관과 대한적십자사 각시도 지사, 그리고 여의도 만남의 광장에 접수 창구를 설치 접수 및 명부열람을 담당하고, KBS는 기 접수된 이산가족 명부 처리와 명부열람을, 그리고 전산처리는 치안본부 전자계산소와 우리 연구소가 공동으로 담당하였다.

이산가족 찾기 처리 과정은 이산가족 신청서 작성(83년 7월 13일 ~ 83년 7월 31일, 접수 대상자는 45년 8월 15일 ~ 50년 6월 25일 사이에 헤어진 가족), 전산처리, 명부 작성·통지

및 열람(computer 단말기 및 명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산처리 과정은 우리연구소가 접수 자료를 입력한 후 신청자들 간에 생년월일·이름·그리고 헤어진 시기 등과 같은 특징들을 key word로 1차 대조하여 이산가족을 찾고, 신청자료에 대해 치안본부에서 다시 신청자와 전 국민을 상대로 대조 작업을 실시하여 같은 가족으로 판단 되는 사람들에게 개별 통보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1차 우리연구소에서 입력된 신청건수는 약 11만건이었다. 이들 신청자들간의 대조작업을 통하여 같은 가족으로 보이는 건수가 약 1500여건. 이중에는 이미 KBS 방송을 통하여 상봉한 가족도 상당수가 있었다. 신청자들의 연령 분포는 당시 40대에서 60대까지가 약 8만여건으로 전체의 약 80% 정도에 육박하였다. 헤어진 시기별로는 1945년과 1950년 51년이 약 7만 7천건 정도였으며, 출신도(고향)별은 함경남도,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가 약 6만 2천건으로 제일 많았고, 평안북도와 경기도도 상당한 숫자로 기록되었다. 개인 통보 및 동일 가족 여부 확인은 내무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전담을 하였기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산가족이 1차 대조작업에서 상봉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전산처리를 담당한 연구소와 치안본부는 2선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상세한 내용을 알기가 당시로는 곤란한 입장이기도 하였다.

작업 도중 어떤 이산가족은 연구소로 직접 찾아와 신청사항을 정확하게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반면 오히려 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한사코 부탁하는 이도 상당수 있었다. 만에 하나라도 이북에서 잘 지내고 있을 가족들이 이번 일로 인해 북한당국이 남한에 이산가족이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어떤 피해를 받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리라.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과 보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걱정을 하는 이산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이산의 슬픔을 느껴야만 했다.

약 1개월 동안 여러 날 밤을 새운 짧은 작업기간이었지만 이산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으로 모두들 열심이었고, 자료검색 도중 거의 한가족으로 보이는 신청자들의 자료를 보며 우리끼리 환호성을 울리곤 하면서 일하는 보람을 찾기도 하였다.

이산가족 찾기 작업 이후 성 기수 소장님과 2명이 청와대 오찬에 초대되었다. 그때 대통령

옆에는 이산가족이 낳은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대전 오라버니와 제주의 누이동생 남매가 자리를 함께 하였다. KBS에서는 여러명이 국민 훈장을 받았다. 그때 점심이 맑은 소꼬리 곰탕이었는데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시기에는 좀 거북스러운 스테이크가 함께 나왔었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이 먼저 어떤 음식을 들기 전에는 시중드는 사람의 눈초리에 감히 먼저 먹을 수도 없던 처지에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 이산가족 대표들이 점심이나 제대로 드셨는지. 그리고 마주앙이 곁들여졌었는데 아마 한때 마주앙이 시중에 품귀를 빚던 때였던 것 같다.

돌아오는 길에 차속에서 성 소장님이 청와대 오찬장 테이블에 있던 자신의 명패를 보이며 미소짓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우리는 그것을 챙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이산가족 찾기는 그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제 하루 바빠 통일되어 이산의 슬픔이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